

## Apprentice Jockeys' Learning Experience of Horsemanship

Kim, Taejong<sup>1)</sup> (Seokyeong University)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pprentice jockeys' learning experience of horsemanship. Narrative analysis was used to achieve the goal of research. Three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he data of research was collected from mainly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narrative of apprentice jockey in each learner's life we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to their experiences of learning the horsemanship. Therefore, the experi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the horsemanship is the opportunity to restart their new life arranging the meaning of their life. Second, the experience of apprentice jockey learning the horsemanship is to be the reason of their beings, connect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result in the method and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ir wisdom in life.

**Key Words:** Apprentice jockey, horsemanship, learning experience, narrative inquiry

---

---

---

1) Corresponding Author: Taejong Kim, Seokyeong University, 124, Seogyeong-ro, Seongbuk-gu, Seoul, Korea, 02713 / E-mail: ktjong12@kra.co.kr  
Received: October 30, 2017 / Revised: November 13, 2017 / Accepted: December 13, 2017

##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 경험이 갖는 의미

김태종<sup>1)</sup> (서경대학교)

---

---

< 요약 >

---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마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수가 되기 위하여 마술학 학습을 하고 있는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경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선택적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서 수습기수 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 참여자별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균 3회 면담과 참여자와 관련된 기고문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기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삶의 요소와 마술학 학습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자기주도적인 마술학 학습경험은 삶에 대한 의미를 통합·정리하여 미래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둘째, 수습기수에게 마술학 학습은 수습기수로서의 존재하는 이유이며,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연결해 주고, 생활의 지혜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연마하는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로 귀결되었다.

**주요어:** 수습기수, 마술학, 학습경험, 내러티브 탐구

---

---

---

1) 교신저자: 김태종, (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 E-mail: ktjong12@kra.co.kr  
논문투고: 2017. 10. 30 / 심사일자: 2017. 11. 13 / 게재확정일자: 2017. 12. 13

## I. 서 론

말(학명: equus caballus)은 기원 전 3천년 이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동물 중 하나이다. 말의 활용에 있어서 과거에는 가축, 교통수단, 전쟁 도구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최근에는 레저와 스포츠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말 산업은 감성과 교감을 상징하는 말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서명천, 2013). 또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말의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창출되는 여러 산업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활용 여하에 따라 1차에서 3차 산업 까지 많은 경제적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과 차별화하여 2011년 말 산업 육성법(2017)을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말 산업과 관련된 직업은 경마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수, 말의 아버지라 불리며 경마 전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교사, 조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마필관리사, 재활승마 산업의 핵심인 재활승마 지도사 등이 필수 직종으로 꼽힌다(강세민, 2017). 말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한국마사회, 2017a)로서 이들에 대한 말의 학습은 마사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기수 및 승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말 산업 종사자 교육과 생활 속의 마술학 학습으로 나누어진다. 말 산업 종사자 교육은 말 산업 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승마산업 교육과 경마산업 교육을 말한다. 기수후보생 교육은 경마장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산업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말 산업 종사자에 대한 생활 속의 학습은 경기에 출전하거나 기승(騎乘)기술 향상을 위하여 새벽시간에 조련을 하거나 일과 시간에 하는 마술학 학습을 말한다.

그동안 말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승마산업 육성(박진국, 2016; 이병섭, 2010; 차재만, 2012; 한성희, 2014)이나 말 산업 육성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류재량, 2013; 서명천, 2013; 유웅, 2016)가 주를 이룬다. 또한, 이들 연구는 승마산업 육성이나 승마 참여자의 레저 활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본 연구와 같이 말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나 경마산업 종사자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 산업 종사자 중 경마장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본 마술이나 경주마술을 학습하고 있는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경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기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삶과 마술학 학습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수습기수의 인생사의 의미구성에서 마술학 학습의 본연적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말은 생물학적으로 말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말은 약 5,800만 년 전에 출현한 에오히푸스가 최고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약 100만 년 전에 현재 말과에 속하는 에쿠스로 진화했다. 에쿠스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각 지역에서 많은 종족들을 분산시켰는데, 현대 말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고원형, 초원형, 삼림형 3종이다(한국마사회, 2010).

말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에 가장 밀접한 가축 중 하나이며, 기마문화의 전통으로 한국 역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고구려 5세기 무용총에 나타난 말을 탄 수렵도, 신라 6세기 천마총의 천마도와 기마 인물도, 조선 건국의 목마정책 공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말과 말 목장에 관한 국가적 가치 기술, 조선시대 화가 윤덕희의 마상부인에 비쳐진 기승 사료 등으로부터 한국은 기마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남준우, 유웅, 표정욱, 2016). 이러한 말과의 교감을 통한 인간의 감성 자극을 바탕으로 하는 말의 기능이 현대에는 다양한 산업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말의 이용에 따른 산업들의 등장은 말 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명천, 2013).

말 산업이란 말을 매개로 파생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산업이다(박진국, 2016). 말 산업은 말 산업 육성법 제 2조에 의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마·승마 등 말을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과 여기에 필요한 말의 생산·훈련·유통 등과 연관된 모든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한국마사회, 2017c). 그리고 말 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으로 구분해보면, 경마는 경주마 사육·경마장 운영·경주장 운영·경마단 운영·경마훈련·마권판매·경마·경륜·경정·관련 표권 발행 및 판매, 승마는 승마신발 제조·승마화 제조·승마용품 도매·마용 마구 도매·승마용 마구 소매·승마장 운영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통계청, 2017). 또한, 말 산업 표준직업분류표에는 경마업과 승마업의 소비산업, 말 생산·육성·유통의 기반산업, 기타 연관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마사회, 2017b). 국내 말 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하여 3조 4,120억 원으로써, 경마부문이 가장 큰 78.1%를, 마주 부문이 8.1%, 말 관련업이 6.6% 순이었으며, 말 산업 종사자 규모는 16,662명으로서, 경마분야 58.3%, 경마 외 분야 41.7%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경마는 기수가 기승(驥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에서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며(한국마사회법, 2017),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한국

마사회법, 2017). 기수후보생은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득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교육원에 입학한 사람, 수습기수는 기수후보생이 된 이후 3학년에 올라갈 때 한국마사회의 수습기수 면허증을 취득하고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기수후보생을 말한다(한국마사회, 2017a). 기수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서, 연령은 더러브렛 과정은 입학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6세 이상 만 22세 이하인 사람이며, 제주마 과정은 입학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6세 이상 만 25세 이하인 사람이다. 신체적 조건은 신장이 168cm 이하인 사람, 체중이 49kg 이하인 사람, 시력이 왼·오른쪽 각 0.3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난청·색맹 또는 복시(複視)가 아닌 사람이며, 교육과정은 4년이다(한국마사회, 2017c).

마술(馬術)이란 승마의 기술이라는 ‘승마술’의 준말로써, 승마(乘馬)는 사람이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거나 장애물 또는 일정한 규칙을 통해 점수를 겨루는 경기이다(한국마사회, 2017a). 수습기수는 한국마사회가 발급하는 수습기수 면허증을 가지고 경주마를 타고 경마에 출전하기 위해 기본마술, 경주마술로 나누어 마술학 학습을 하고 있다. 기본마술과 경주마술은 말을 탄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기본마술 학습은 말의 습성을 이해하고 기승자의 의도대로 말을 유도하며, 진행과 제어가 자유롭게 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지만, 경주마술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주중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즉 출발의 민첩성, 경주전개의 판단력, 결승선상의 추입력, 그리고, 기승자의 스포츠맨십에 바탕을 둔 승부근성을 배양하는 마술학 학습이다(김동환, 2016). 기본마술과 경주마술은 경주중에 항상 상호 관계로 작용하고 있어서 기본마술의 기본자세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경주마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마일체의 완벽한 조화에 바탕을 둔 스피드의 향상이 가능하다(김동환, 2016).

Aristoteles(n.d.)는 ‘형이상학’의 제 1권 제 1장 첫 문장에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p. 44).”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학습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표현한 말이다. 인간은 항상 학습하고 변화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London, 2011). 인간의 학습은 일생동안 전인, 즉 육체(유전적·육체적·생물적)와 정신(지식·기술·태도·가치·감정·신념), 감각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인식된 내용을 인지적·정서적·실제적인 것으로 전환하며, 개인적인 전기로 통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좀 더 경험한)인간을 만들어 내는 생애에 걸친 과정의 조합이다(Jarvis, 2009).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조직 내의 학습과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발달을 위해 생애사 학습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특히 학습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Andersen & Trojaborg, 2007).

학습(learning)은 상황에 따라 매우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Illeris, 2007). 학습은 학습 장소에 따라서 조직 안의 학습과 밖의 학습으로, 학습

방법에 따라 형식·무형식·비형식 학습으로, 신체적 연령에 따라 아동기·청년기·장년기의 학습으로 구분되는 등 적용범위가 넓고 복잡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이고 경험에 기초를 둔 전기성과 관련을 지을 수밖에 없다(Illeris, 2007). 생활 속의 학습은 어디에서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활의 변화가 학습의 계기가 되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에게서는 학습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Biesta et al., 2011). 우리가 이런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활동, 실천의 개념(concept of practice)에 대해 알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Andersen & Trojaborg, 2007), 학습이 삶의 전 영역(lifewide)으로 체계적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형태로 상호 보완되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Alheit, 2009).

### Ⅲ. 연구방법

####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 경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람, 사물, 현상에 범주화나 수량화가 가해지기 이전의 상태인 ‘있는 그대로(Ding an sich; as it is)’의 상태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는 민속적 이론(folk theory)이며, 현장이론(grounded theory)이다(조용환, 2011).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대상자에 의해 서술된 체험과 경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Clandinin & Connelly, 2008).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수습기수가 마술학 학습을 하면서 말과의 교감이나 몸으로 느끼는 문제 및 이슈 등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서술하는 존재이다(추갑식, 2012).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이야기라는 의사소통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담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Bruner, 2011). 본 연구에 참가한 수습기수도 과거나 현재에 학습한 마술학과 미래에 학습할 마술학을 연구자에게 이야기하고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과 과거와 현재의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마술학 학습 경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마사회의 기수후보생 전담 교육기관에서 마술학 학습을 하고 있는 수습기수의 학습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현재에 학습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인간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경험이며, 마술

학 학습도 경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관찰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고자 할 때에는 경험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Levin & Hinrichs, 1995). 셋째, 내러티브는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 과거·현재·미래의 계속성, 장소의 상황 개념과 결부되어 은유적인 3차원적 공간탐구 모델을 만들어 낸다(Clandinin & Connelly,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참여자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넷째, 내러티브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개인의 인생맥락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생의 다층적 맥락을 설명하는 ‘카펫 아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Creswell, 2012). 그래서 본 연구는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과 관련된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 목소리에 비중을 두고 더 많은 공간적 내러티브를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길 찾기로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는 일생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줄 수가 있다(Baddeley & Singer, 2012). 정체성은 내면의 에고(ego)로서, 인간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박민정, 2006), 본 연구는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 경험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 찾기로 할 수 있다.

## 2. 연구의 절차 및 연구 참여자 선정

내러티브 연구 절차는 내러티브만이 가지는 고유한 절차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완성을 위하여 Clandinin과 Connelly(2008)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인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학습에 대한 이해를 하는 정도의 현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둘째, 마술학 학습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 가는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여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셋째,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술학 학습 중에 일어난 중요 사건에 대해 코딩을 해 나가는 현장 텍스트의 해석적 구성하기, 넷째, 마술학 학습과 관련된 사건을 연결해 나가는 현장 텍스트에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을 통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다섯째,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안영미, 2008).

연구 참여자는 선택적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selective sampling procedures)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대상은 연구자의 인터뷰가 가능한 비형식적 평생학습기관인 한국마사회 경

마교육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기수후보생(수습기수)로 하였다. 선정방법은 기수후보생 중에서 1년 이상 말을 타고 마술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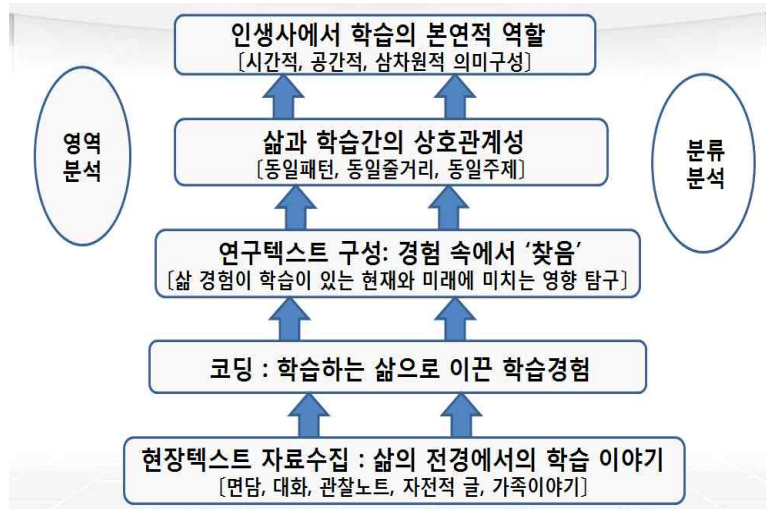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학년)	현직	최종 학력	결혼 여부
김효진	여	23(3)	수습기수	고졸	미혼
이종진	남	22(3)	수습기수	고졸	미혼
이동한	남	24(4)	수습기수	고졸	미혼

비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임

### 3.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 자료는 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언론 기사와 기고문 및 연구자의 관찰 등도 병행하여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 정리는 인터뷰 과정 속에서 스며든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별로 1회에 1시간 정도의 미리 준비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인별 평균 3회씩 개인 면담 형식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은 녹취하여 전사하였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넷 카페 글, 언론보도 기사 등의 자료도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쳤다. 관찰은 Spradely(2006)가 제시한 자료의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과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역 분석은 연구 참여자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것을 말하며, 분류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생활과 학습과정의 흐름을 분석한 것을 말한다. 세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절차는 자료수집의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에 따라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참여자의 학습 이야기를 통한 자료 수집과 학습하는 삶으로 이끈 ‘찾음’에 대한 학습의 의미, 일상적인 삶과 학습간의 관계성, 학습의 본연적 역할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구성과정은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1] 현장 텍스트 작성과 연구 텍스트 구성과정

####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첫째, 신뢰성 확보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반복 청취하고 전사 기록물을 반복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 현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검증하거나 녹취록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이다. 적용 가능성은 똑같은 대안적 연구 절차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러티브는 특수한 개별적인 것들을 다루면서도 특수적인 것들 속에서 이상화되기 때문이다(Bruner, 2011).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마술학 학습 경험의 의미가 자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현장인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을 인터뷰 장소로 선정하였다. 셋째, 일관적인 의존 가능성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 맥락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의 질의 내용을 시작·중간·마무리의 3등분으로 구분하여 문맥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3차례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확증성이다. 이는 연구자의 경험에 치우쳐진 편향성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을 연구 참여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경험이 자료 해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입관을 배제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다섯째, 인간적·실제적·사회적 정당화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틀 안쪽에 놓여 있는 체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Morgan, 2012). 그래서 내러티브 연구자는 인간적·실제적·사회적인 방법으로 연구 질문을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다(Clandinin & Caine, 2013).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 경험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와 수시로 연락하고 재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 IV. 「수습기수」의 삶의 모습에서 본 학습 이야기

##### 1. 김효진 씨의 내러티브

<표 2> 자신감을 주는 말 타기

구분	이야기 주제	주요 이야기
초등학교, 중학교	방황하다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서 운동하는 시늉으로 방황하는 생활을 함
경마 축산고등학교	「말」을 알게 되다	기본마술을 익히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수가 되기로 결심함
경마 아카데미	수습기수가 되다	수습기수의 면허시험에 낙방하여 고민을 한 다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재도전하여 합격하고 경마장 경주에 출전함

<표 2>는 김효진 씨의 삶의 이야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김효진 씨는 1996년 1월 전북 남원에서 코레일 승무원으로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껴 쓰고 어려운 집안에서 살면서, 가족관계는 좋았습니다. 잘 살지를 못한 탓에 몇 번 이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을 다녔는데 운동을 해서 공부는 별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그녀는 중학교에 다닐 때 까지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운동에만 관심을 두었다. 중학교 졸업할 때에는 방황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전북 남원 운봉읍에 있는 말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김효진 씨는 한국경마축산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말을 타게 된 것을 계기로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말은 마이스터 학교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을 탈 기회가 없었는데, 축산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말을 타게 되어 제 삶이 무척 좋아 졌어요. 말을 타는 것이 생활에 자신감도 불어 넣어 주고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사람 기분을 매우 밝고 좋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말에 대한 기초적인 기승 술인 기본마술을 주로 학습하면서, 기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경마장의 기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효진 씨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014년도에 경마를 하는 기수가 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부설 경마교육원에 입학하였다. 경마교육원에 입학을 해서도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기승 술의 기초가 되는 기본마술을 학습하였으며, 2학년 때에는 기본마술과 경주마술을 동시에 학습하였다. 경주마술에서 요구되는 기승 술은 완벽한 인마일체의 조화 속에 최상의 경주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동환, 2016).

고등학교 3년 동안 기본마술하고, 경마교육원에 입학해서도 1~2년은 기본마술을 하여 5년은 기본마술로 말을 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마술은 배우지 않고 경주마술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씨는 기수후보생 2학년을 수료하고 수습기수 선발을 위하여 필기와 실기, 면접을 보는 수습기수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에 과락을 맞아 면허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1년간 휴학을 하게 되었다.

휴학을 한 1년의 공백 기간은 매우 힘들어서 초·중학교 때 테니스를 하다가 그만 둔 것처럼, 몇 년 동안 ‘기수’ 되기 하나만 준비한 기수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라고 고민이 무척 많았어요.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언니가 ‘효진아! 힘 내, 효진이는 할 수 있을 꺼야!’ 라고 써 준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 할머니가 살았을 때 할머니에 대해 ‘어머니’ 라는 시를 아빠가 쓰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리울 때는 과거에 쓴 것을 보곤 하던 것이 생각났어요.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수습기수가 된 지금은 그 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 주고 있으며, 경주마 조련

(調練)과 기수후보생 교육용마 기승 훈련으로 힘이 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주고 있다.

김효진 씨는 지금 과천의 서울경마장에서 새벽 훈련을 하고 경마일에는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 경주를 하다보면 경주 마술학, 특히 실전 경주실력이 모자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마술학 점수에 75점을 주고 싶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경주마술을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점수에 대해서는 95점을 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학교 다닐 때 운동을 포기하거나 수습기수 면허시험에 낙방하여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낙오하지 아니하고 재도전 의지를 가지며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수습기수가 되었고, 수습기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경마장에 기수로 출전하니,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효진 씨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본마술을 배우고 기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들어와 기본마술과 경주마술을 배우게 된 것은 기수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에 따라 산 것이어서 인생 전부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2. 이종진 씨의 내러티브

<표 3> 기수는 나의 직업

구분	이야기 주제	주요 이야기
초, 중, 고등학교	형식적인 학교수업	학교공부는 뒷전이고 과외선생님에게 의존하여 학창시절을 보내고, '기수' 라는 직업을 선택
기수 후보생	힘들었던 1, 2학년시절	동급생은 말을 타 보았는데 본인만 처음이어서 진도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웠음
수습 기수	스스로 자립하다	돈도 없고 보람도 느끼면서 자신이 대견해 보이고 자부심을 가지게 됨

<표 3>은 이종진 씨의 삶의 이야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종진 씨는 1996년 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있는 집에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이 부유하게 자랐던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5살부터 과외 선생님에게 영어·수학·한자 등을 배웠으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비교적 여유롭게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종진 씨는 학습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고등학교까지도 과외 선생님은 줄곧 있었어요. 여러 과외 선생님을 거치는 동안 초등학교 이전에 과외 선생님에게 배운 수학은 조금 기억을 하는 정도였으나 학교 졸업 이후에는 거의 잊어 버렸습니다. 영어는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커서도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 배워 놓으면 어디에도 쓰일 것 같았어요. 단어 같은 것을 공부했어요. 혼자서요. 집에서 혼자 단어만 조금 학습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과 미래의 직업을 조사해 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던 중 과외 선생님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아니하고 시원하게 말을 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 경마장의 기수를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말을 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직업으로도 경마장의 기수가 멋있을 것 같아서 한국마사회 기수후보생 시험에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였다. 2015년 3월, 20세의 나이로 이종진 씨는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입학하게 된다. 경마교육원에 입학한 초기에는 무척 힘이 들었던 시절이었다.

힘들었던 시절은 경마교육원 기수후보생 1~2학년 때입니다. 나는 말을 처음 보고 타 보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말을 타 본 경험이 있는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가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때, 고등학교 다닐 때 사귀던 여자 친구가 ‘힘내, 좌절하면 안 돼’ 하고 편지를 보내주고 응원 전화도 자주 해주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2학년 시기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인생은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온 끈기와 인내심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입학한지 3년이 지나 수습 기수가 된 지금 이종진 씨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조금 찾은 것 같다.

과거에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 막연해 하였는데, 지금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말을 탄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또,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갇혀 있

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에 빨리 나와 돈을 벌어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좋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견하고 자부심도 많이 생겨요.

이종진 씨는 현재 수습 기수 1년차이면서, 기수후보생 3학년이다. 경마교육원을 졸업하고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기수가 되어야 한다. 말 타는 실력도 지금보다 향상되도록 기승자세가 더 개선하여야 한다. 말과 대화하는 것은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고삐로 세계 당겼다가 편하게 나누었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만 하던 것을 자신의 음성이나 기승자세 등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술학 실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중에는 하루에 경주용마를 10마리까지 타고 인생에 대한 점수는 100점을 주면서도 마술학 실력은 스스로 5점 줄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술학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자신이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 기뻐할 때는 까부는 말을 타면서 순치시킨 후 말에 적응하여 편안하게 탈 때가 매우 기뻐합니다. 슬뻐할 때나 짜증이 났을 때는 까부는 말이 계속 안 잡히고 탈 때마다 계속 말을 안들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진 씨는 자신이 「인생의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사회에서 말을 제일 잘 타는 유능한 기수가 되면 자타가 인정하는 경주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경마장의 기수를 은퇴한 이후에는 경주를 총 감독하는 조교사가 되거나, 파충류를 키우고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분양하고 번식시키는 동물 애호가로 살고 싶어 한다.

### 3. 이동한 씨의 내러티브

<표 4>는 이동한 씨의 삶의 이야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동한 씨는 1994년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많이 다닌 관계로 초등학교는 안양에서, 중학교는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는 경기도 군포에서 졸업하는 등 옮겨 다니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

&lt;표 4&gt; 기수는 오래 하고 싶어요!

구분	이야기 주제	주요 이야기
초, 중, 고등학교	운동과 축구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시합을 즐기면서 기초체력을 기르다
기수 후보생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다	기수로서 신체조건과 체력이 맞아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기수후보생을 보내다
수습 기수	기수 생활을 오래하고 싶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주에 낙마하여 기본마술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룡련의 기수를 꿈꾸다

공부는 유치원에 입학하던 4~5살 무렵에 수학이나 미술 같은 일반교양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다른 아이보다 제가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고 축구 시합을 자주 하는 등 운동을 주로 많이 해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동한 씨가 이사를 많이 다닌 탓도 있지만 축구를 하는 등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학습 자체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많았던 것 같다. 이동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 없이 방향을 하게 된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평소 알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상체나 하체가 모두 발달해서 체격조건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것이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기수라는 직업에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마사회 기수후보생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된다. 기수후보생 입학시험도 경쟁이 치열했지만 무난히 합격을 하여 2014년 3월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기수후보생으로 가 입학하였다. 가 입학한 이후에 정식 입학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처음 타보는 말이지만 말을 타보니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활에 큰 만족을 주는 것 같아 기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014년 6월 정식 기수후보생으로 입학하였다.

말을 타 보니 일단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생활에 대 만족이었어요. 하하!

기수후보생이 된 이후에는 말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는 기본마술을 익혀나갔다. 입학을 한 처음에 기본마술을 학습하는 동안에 이동한 씨는 동료들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공부 보다는 운동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수후보생은 신체조건에도 딱 맞았고, 말 타는 것이 주변에 부러움도 주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생활에 큰 만족을 주었다. 또한, 학창시절 축구를 많이 한 것이 체력에 밑거름이 되어 말 타기에 많은 보탬을 주었던 것이다.

이동한 씨는 경마교육원에 입학해서 기본마술을 배우고 2학년이 되면서 실제 경주에 필요한 경주마술을 학습하고부터 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2학년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료하고 3학년이 되어 수습기수 면허시험도 보고 합격을 하여 서울경마장의 수습기수 자격으로 실제 경주에도 출전하였다.

수습기수가 되어서는 과천 서울경마장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조교(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사전 운동을 하는 것)를 하고 토, 일요일에는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성적도 보통 이상은 된다. 1년 남짓 경마에 출전을 하였는데, 1등을 24번이나 하여 평균성적 이상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자신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이동한 씨는 2017년 1월말 서울경마장에서 경주도중 낙마를 하였다.

경주중에 낙마하여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안양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약 2개월은 입원했을 것입니다. 이 때 물리적인 재활치료를 하면서 기본마술이나 경주마술의 마술학 학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어요.

그가 입원 중에 생각을 해낸 것은, 첫째, 기수로서 신체조건과 체력이 맞다는 생각에 기본마술을 소홀히 하고 경주마술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탓에 기본마술 실력이 부실하였다는 것, 자만심이 앞서서 기초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미래에 탑 기수가 되고 명성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오래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수가 되고 싶었다. 셋째, 말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경마장의 기수를 은퇴하더라도 조교사가 되거나 말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고 말과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다.

## V. 「수습기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삶과 마술학 간의 관계

### 1. 삶 속에서의 마술학 학습

본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마술학 학습을 하게 된 계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말을 타고자 하는 욕구나 마술학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모두 강하다. 김효진 씨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 기수후보생에 합격 했을 때와 서울경마장에 수습기수로 데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축하해 주었을 때이다. 기수가 인생의 전부이자 마



술학이 삶 자체가 된 것이다. 김효진 씨가 2011년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말을 타고 말과 같이 생활한 것은 7년으로서, 자신의 삶 중에 3분은 1은 말이 자리 잡고 있다. 사춘기 시기인 17~18세면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을 나이인데, 김 효진 씨는 말에게 먹이를 주며 마방(말의 보금자리)을 관리하고 마술학을 배우면서 말과 같이 생활했다. 김효진 씨에게 말과 마술학은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23살이 된 지금,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는 서울경마장 경주에 출전하여 1등을 하였을 때이며, 가장 슬프거나 속상한 것도 경주마를 타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경주마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실제 경주에서 생각과 같이 경주 작전이 잘 안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효진 씨는 말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편이어서 말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심하게 다그치거나 채찍으로 때리지는 않는다. 말을 어루만져 주고 다독이면서 다듬어 주어 보면 말이 자신에게 대하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말과 같이 생활하는 효진 씨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다. 기수에게 요구되는 체중 때문이다.

기수는 체중관리가 생명인데, 체중관리가 매우 어려워요. 먹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탓에 매일 매일 체중을 재어 48kg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체중조절을 하지 못해 작년 에 수습기수 면허시험에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은 안 먹고 다이어트하면서 점심도 간단히 먹어요! 운동은 체력장에서 땀복 입고 헬스도 하고 러닝머신을 많이 해요.

김효진 씨는 미래에 다가올 인생의 최고 정점 시기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탑 기수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서 말과 마술학이 있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이종진 씨는 말과 함께 생활한 것이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 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하여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 관계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동물을 접하고 좋아하다가 말을 대하니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보는 것 같아서이다. 그런데 말을 타보니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타는 것은 크게 달랐으며 해야 할 것도 많았다. 자신의 경주마에 대한 마술학 점수를 5점만 줄 정도로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새벽 5시 30분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여 1일 10마리나 경주마를 타면서 하루 종일 말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말을 타는 것 그 자체가 좋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종진 씨는 말을 타지 않을 때에도 다른 특별한 운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보다는 그냥 혼자서 경마교육원 기숙사에서 쉰다. 경주마를 타면서 그만큼 집중하고 긴장하여 피곤하기도 하지만 말 타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말을 타고 관

리하면서 말을 보살피는 것이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말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동한 씨는 경마교육원 4학년이자 수습기수 2년차로서 서울경마장에서 경주에 출전한 것이 2년이 되었으며, 2018년 6월에 졸업을 하여 기수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정식기수가 된다. 말을 타고 관리한 것이 수습기수 2년차여서인지, 말을 다루는 솜씨도 김효진 씨나 이종진 씨보다는 노련해 보인다. 말과의 신호도 말에게 물리는 재갈보다는 간단한 음성이나 동작으로 하고 있으며, 말의 나쁜 습성도 교정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의 상태가 좋고 나쁨을 자신의 느낌으로 파악하여 말과 대화하면서 다룰 정도가 되었다.

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데 계속 말을 타 보면 순치도 되고 하니 말을 안 듣는 말을 순치시키면서 자기 말을 만드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동한 씨는 자신의 인생 점수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에 대한 자신의 마술학 점수에 대해서는 기본마술은 60점, 경주마술은 80점을 주고 싶다고 한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여 말을 타는 것도 쉽게 생각한 것이 주된 이유로 경마교육원 입학 초기에 말의 기초가 되는 기본마술을 소홀히 하여 기본마술 실력이 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을 타면 평소에 있었던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자연스럽게 잊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어서 「생활의 힐링」이 되는 것이 지금은 말을 타는 마술학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말을 타는 것이 삶을 즐겁게 하여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말 타는 경험은 인생의 힐링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말을 타는 것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2. 마술학 학습의 시간적·공간적 의미 구성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서술에 대한 연구이며, 사건의 이야기가 인간경험을 설명하는 기본단위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단위라는 가정을 포함한다(Pinnegar & Dayness, 2012). 시간 연결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순서를 이어가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공간 연결은 마음속의 빈곳과 빈 곳을 연결하여 의

미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김태중, 2014).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험에 관한 용어는 개인적·사회적인 상호작용,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 장소에 따른 상황 개념과 결부되며, 이러한 용어는 은유적인 3차원적인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만들어낸다(Clandinin & Connelly, 2008). 사물의 본질적인 공간이 물체와 사건이 출현해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지니는 3차원의 무한한 범주에 있다면, 마음속의 심리적인 공간은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공간이다(김태중, 전주성, 201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통해 기수후보생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현재의 마술학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 점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점수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 김효진 씨는 '중학교 때 까지 운동을 좋아하여 공부는 건성으로 하다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를 입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마사회 기수후보생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수습기수가 된 지금 마술학에 대한 학습점수는 75점을 줄 수 있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95점을 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중학교 졸업을 하고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말과 함께 살아가기로 진로를 결정한 이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의 수습기수까지 하는 동안 자기 인생은 만족스럽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할 수 있지만, 마술학에 대한 점수는 앞으로 더 배우고 실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마술학에 대한 자기 평가 점수는 경마교육원을 졸업하고 정식기수가 되어 베테랑이 되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마술학을 배우면서 자기의 인생은 지금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효진 씨가 23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말과 만나게 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입학이후의 7년과 중학교 졸업 시기까지의 16년에 대한 자기 평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운동을 좋아해서 공부나 학습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었는데 비해,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말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학습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기분이 매우 밝고 좋았다.'라고 말 할 정도로 대비가 뚜렷해졌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입학 이후 7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23년에서는 30%에 불과하지만 인생에서는 100%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학습의 목적은 학습하는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Mezirow, 1997), 실천하는 사람의 주체적 행동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Knowles, 1975). 이동한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세에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 기수후보생으로 입학하여 기본 마술학과 경주 마술학을 배우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동한 씨는 마술학의 기초가 되는 기본마술은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2년간이나 배웠지만 경주마술을 배우고 있는 지금도 경주마술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평가 점수도 80점을 주는 경주마술보다 적은 60점을 주면서 기초를 소홀히 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동한 씨는 2년간을 학습한 기본마술은 1년간을 학습한 경주마술보다 항상 실력이 부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진 씨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많은 과외 선생님께서 과외를 받아 왔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 그가 운동을 좋아 한다는 사실과 운동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마사회 기수후보생 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를 해 주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과외선생님은 수학·영어·한자 등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머물렀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의 1년간 과외 선생님은 그의 적성을 보고 진로를 안내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종진 씨의 마술학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는 아직 5점에 불과하다. 자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100점인데 비하면 아주 적은 점수이지만 인생에서 최고 정점이 될 베테랑 기수 시절에 100점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실력을 엄격히 평가해서 주고 싶다는 점수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사건들이다. 김효진 씨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기본마술에 대한 학습이, 이종진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과외 선생님과 함께 했던 1년간의 과외 학습이, 이동한 씨는 아르바이트 할 때 1년 간 방황을 했던 경험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주고 삶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마술학 학습의 공간적 의미 구성에서는 '상황'과 '경험'의 두 가지 기둥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는 시간적 의미 구성만으로는 설명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과 '학습 장소에서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 참여자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황적인 측면에서 김효진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집 근처에 있는 마이스터고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를 들어간 것이, 이종진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 이동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방황하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각각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장소는 모두 달랐지만 '상황'과 '경험' 측면에서는 그들은 대학입학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상황에서, 동물을 좋아했거나 운동학습을 해 본 경험이 모두 있다. 김효진 씨는 초등학교 시절 테니스 선수를 하였고, 이종진 씨는 아버지가 파충류 같은 동물을 많이 키워서 자연스럽게 동물과 접하게 되었으며, 이동한 씨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축구시합을 많이 하여 이기는 보람도 많았다.

## VI. 결 론

본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IT 기술에 익숙함을 느끼면서 사회생활에서는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90년대에 태어난 미래 세대들이다. 한국전쟁 후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태어나 가정에서는 귀하고 부족한 것이 거의 없이 자랐으며,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일생동안 이직과 이사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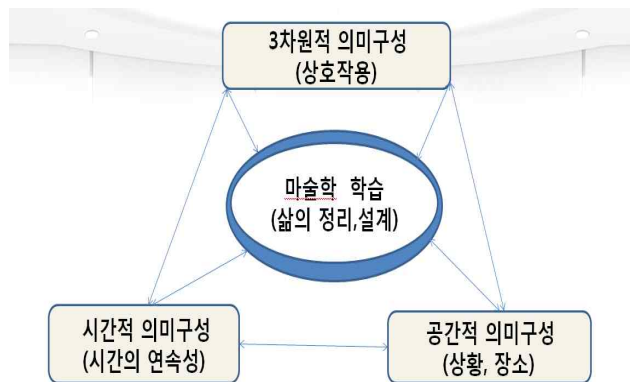
회 이상 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대이기도 한다. 이들은 학창 시절 모두 학교에서의 형식적인 학습보다는 동물이나 운동을 좋아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말(馬)을 알고, 마술학을 알게 되고,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기수'라는 직업을 인지하고서부터는 자기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기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마술이나 경주마술의 마술학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술학 학습 활동의 참여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요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효진 씨는 15세의 나이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본마술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입학하였다. 경마교육원에서는 경주마술 학습에 몰두하고 있으며, 경주마술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서울경마장 경주에 출전 자격이 있는 수습기수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종진 씨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 여러 선생님에게 과외 수업을 받아 오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과외 선생님에게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기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입학하였다. 입학 후에는 기본마술과 경주마술의 마술학을 학습하였으며 현재 수습기수 1년차로서 서울경마장 경주에도 출전하고 있다. 이동한 씨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기수에 자신이 맞을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에 입학하였다. 최근에는 서울경마장의 경주 중에 낙마로 부상을 크게 당하고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서 다치지 않고 오래도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수가 되기 위하여 수습기수 2년차로서 마술학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그림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과거와 현재의 마술학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말 산업 종사자로서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마음 공간 속의 쉼표를 통하여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다닐 때나 한국마사회 경마교육원 기수후보생 시절에 배웠던 기본마술과 수습기수로서 현재 배우고 있는 경주마술을 비교도 하고 다시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3차원적으로는 시간적·공간적,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안과 밖, 과거와 미래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 이러한 마술학 학습의 과정을 통한 삶의 경험은 자신의 전기성으로 통합하고 인생의 의미를 미래와 연계시켜 나간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기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삶과 마술학 학습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수습기수는 마술학, 특히 경주 작전에 필요한 경주마술을 배워가면서 경마장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이다. 그래서 수습기수의 마술학 학습은 삶의 요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마술학 학습경험은 삶에 대한 의미를 통합하고 정리하여 미래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마술학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술학 학습경험의 의미는 마술학 학습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며, 중·장년기 이후에 살아갈 미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계속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림 2] 수습기수에게 있어서 마술학 학습 경험의 의미

둘째, ‘수습기수의 인생사 의미 구성에서 마술학 학습의 본연적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습기수에게 적극적인 마술학 학습은 수습기수로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며,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생활의 지혜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연마하는 수단이며, 목적 그 자체이다. 그래서 수습기수는 삶의 형태에 따라 자기만의 고유한 마술학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학습상황에 따라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기도 하고 있다. 수습기수의 인생에 있어서 마술학 학습은 자신의 삶을 미래와 연결해 주는 방식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세민 (2017.9.7). 국내 말 산업 4조원시대, '말 산업이 달린다'.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41274>
- 김동환 (2016). **마술학**. 한국마사회. 서울 : 대한 미디어.
- 김태종 (2014). **전기학습 관점에서의 초고령 학습자의 학습경험이 갖는 의미**.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태종, 전주성 (2014). 전기학습 관점에서의 초고령 학습자의 학습경험이 갖는 의미. **평생학습 사회**, 10(4) 1-28.
- 남준우, 유웅, 표정옥 (2016). 현대 한국의 말 관련 활동에 드러난 놀이의 기호학적 상상력과 문화 산업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46(1) 151-185.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발표.
- 류재량 (2013). **말산업 육성법 제정 의미와 향후 말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말산업육성법 (2017.11.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
- 박민정 (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 교육연구**, 7(4), 27-44.
- 박진국 (2016). **승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서명천 (2013). **말산업 기반확립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영미 (2008).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두 남성 노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병섭 (2010). **승마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 및 장애요인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유웅 (2016). **말산업 이슈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조용환 (2011).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과주: 교육과학사.
- 차재만 (2012). **국내·외 승마산업 현황에 따른 한국레저 승마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추갑식 (2012). **교사와 학생의 내러티브를 통한 수업 비평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통계청 (2017.9.20.).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에서 검색.
- 한국마사회 (2010). **승마강습지도자**. 서울: 열림에드윈.
- 한국마사회 (2017a). **말산업 용어집**. 서울: 대한미디어.
- 한국마사회 (2017b). **중국말 산업시장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에버민트 파트너스.
- 한국마사회 (2017c). **규정집**. 제8편 말산업. 기수양성 및 마필관계자 교육규정.

- 한국마사회법 (2017.11.15).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
- 한성희 (2014). **승마 참여자의 참여 동기, 선택 속성이 고객 만족 및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Alheit, P. (2009). Biographical learning, within the new lifelong learning discourse. In K. Illeris (Ed.),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pp. 249-275). New York: Routledge.
- Andersen, A. S., & Trojaborg, R. S. (2007). Life history and learning in working life. In L. West, P. Alheit, A.S. Andersen, & Merrill, B (Eds.), *Using biographical and life history approaches in the study adult and lifelong learning: European perspectives* (pp. 143-166). Frankfurt: Peter Lang.
- Aristoteles (n.d.).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조대호 역주, 2011). 서울: 문예출판사.
- Baddeley, J., & Singer, J. A. (2012). 삶의 이야기의 길 찾기: 생애에 걸친 내러티브 정체성. In J. Clandinin (Ed.),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현석 외 역, pp. 237-268). 파주: 교육과학사.
- Biesta, G. J. J., Feild, J., Hodgkinson, P., Madeod, F. J., & Goodson, I. F. (2011). *Improving learning thorough the lifecourse-learning lives*. Oxon: Routledge.
- Bruner, J. S. (2011). **교육의 문화** (강현석, 이자현 역). 파주: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aine, V. (2013). Narrative inquiry. In A. A. Trainor & E. Graue (Eds.),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pp. 166-179). New York: Routled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8).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파주: 교육과학사.
- Creswell, J. W. (2012).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Illeris, K. (2007). *How we learn: Learning and non-learning in school and beyond*. New York: Routledge.
- Jarvis, P. (2009). Learning to be a person in society: Learning to be me. In K. Illeris (Ed.),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pp.21-34). New York: Routledge.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ambridge: Pearson learning group.
- Levin, I. P., & Hinrichs, J. V. (1995). *Experimental psychology: Contemporary methods & applications*. Dubuque: Wm. C. Brown Communication, Inc.
- London, M. (2011). Lifelong learning: Introduction. In M. London(Ed.). *The oxford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pp.3-1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zirow, J. (1997). Cognitive process: Contemporary paradigms of learning. *Adult learning, a reader*. London: Peter sutherland and contributors.



- Morgan, B. (2012). 기록물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In J. Clandinin (Ed.),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 (강현석 외 역, pp. 117-137). 과주: 교육과학사.
- Pinnegar, S., & Dayness, J. G. (2012). 내러티브 탐구를 역사적으로 위치시키기: 내러티브로 전환하는 주제들. In J. Clandinin (Ed.),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강현석 외 역, pp. 25-62). 과주: 교육과학사.
- Spradely, J. P. (2006). **참여 관찰법** (신영식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